

“광주 U대회는 평화·인권 대회입니다”

윤장현시장 美 하버드대서 홍보 특강

윤장현 광주시장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보스턴대학교를 찾아 미국의 젊은 지식들을 대상으로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5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 U대회)를 집중 홍보하고, 민주·인권·평화·정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광주정신을 알렸다.

윤 시장은 또 마티 웰시 보스턴 시장과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 등도 만나 상호교류 방안 및 '5월 광주'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23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하버드대 나펠센터 메인홀에서 하버드생과 현지 한인들을 초청해 광주U대회 홍보를 위한 특강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U대회 홍보대사인 팜페라 가수 임형주(28)씨의 미니 콘서트도 열렸다.

윤 시장은 이날 사전 홍보영상을 통해 '친환경·평화·IT·문화 대회'를 지향하는 광주U대회를 소개하고, 광주정신인 '민주·인권·정의 그리고 미래의 빛'을 주제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윤 시장은 특히 본 강연에서 “광주U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광주정신을 알리는 장으로 삼겠다”면서 “특히 남과 북을 하나로 잇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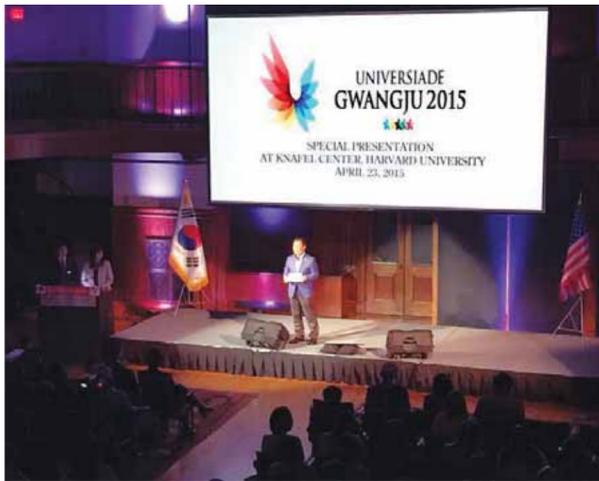
북한의 백두산과 광주의 무등산에서 성화를 채화해 서로 합치는 작업도 준비 중”이라며 광주U대회와 남북화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시장은 일정 둘째날인 24일에는 장소를 보스턴대학으로 옮겨 대학생들과 ‘멘토-멘티’의 만남을 가졌다.

윤 시장은 같은 날 마티 웰시 보스턴 시장과 환담하고 민선 6기 들어 집중하고 있는 ‘청년중심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다.

윤 시장은 또 세계적인 석학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노암 촘스키 교수(언어학)를 만나 ‘광주정신’과 ‘정의’에 대해서도 대화했다.

윤 시장은 촘스키 교수와의 만남에서 “미국의 양심으로 권력자들의 거짓을 고발하고 위선을 폭로함으로써 세계인의 귀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교 나펠센터홀에서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가치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윤 시장은 광주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빛과 광주정신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강연했다.

감이 되고 있는 교수님의 정신과 민주·인권·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 온 광주정신은 일맥상통한다”면서 “광주에서 오는 5월 열리는 ‘세계인권포럼’에 대한 관심

과 함께 시간이 허락한다면 광주에도 촘스키 정신을 확산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보스턴=채희종기자 chae@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오늘 분수령

광주시장-전남지사 소재지 놓고 합의 예상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 의제 중 하나인 시·도 발전연구원 통합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의 대의명분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등 관계 기관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각론에 들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출연금 격차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통합 연구원이 들어설 위치를 어디에 규정할 것인지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7일까지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소재지에 대한 합의를 알려오면 상임위를 열어 재정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를 놓고는 광주시와 전남도의회는 27일까지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소재지에 대한 합의를 알려오면 상임위를 열어 재정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를 놓고는 광주시와 전남도의회는 27일까지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소재지에 대한 합의를 알려오면 상임위를 열어 재정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사회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열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통합 연구원 소재지에 대한 조례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 끝에 보류했다.

연구원 소재지를 놓고 전남도는 조례에, 광주시는 정관에 넣자는 입장이다. 또 광주시의회가 소재지 문제는 시·도 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전남도는 소재지를 빛가람혁신도시로

조례에 못을 박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재지 수정안은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보받은 광주시의회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강성희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연구원 소재지를 빛가람 혁신도시로 하자는 것은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상생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7일 시장과 지사가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시·도 의회는 연구원 통합조례안에 경영과 연구의 독립성 강화, 발전계획 수립, 연구원 고용체계, 원장 선임문제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처리를 유보했다.

양 시도는 의회 의결을 시도지사의 이사회 참여 배제, 시도의회 공동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양 시도의회 의결을 대부분 수용한 조례안을 제출, 이날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광주발전연구원은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올 전기차 100대 민간 보급

다음달 24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24일까지 전기자동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보급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시민과 중소기업, 유통업체 등으로 추첨을 통해 보급한다.

다만 신청자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주차장 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공동 사용할 수 있거나 이동형(모바일)충전기를 사용해도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가 인정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1800만원이 지원되며, 완속충전기도 6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해 준다.

본인 부담금은 차종에 따라 1700만원(레이)에서 최대 4670만원(BMW)이다. 서울과 SM3, 사파코 EV 등은 2300만원 안팎이다.

전기차 보급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 자동차 산업과(613-3932)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치권 의견 접근... 공무원 단체 설득 관건

연금개혁 '운명의 1주일'

여야 실무기구 개혁안 윤곽

기여율 9.5%, 지급률 1.7% 가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 시한(5월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26일 실무기구의 최종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날인 27일 양당 원내대표와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만나 개혁안을 조율하고 특위 범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등 숨 가쁜 한 주를 보내야 한다.

이미 실무기구 차원에서 개혁안의 윤곽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초 새누리당이 제시한 '구조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침을 둔 '모수개혁'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사실상 '구조개혁'의 성격이 가미된 '모수개혁'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김용하 안'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10%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모수개혁에 바탕을 두고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구조개혁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이 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 7%+a, 지급률 1.9%-β'를 제시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a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걸으려는 상대 당을 공격하지만, 물밑에서 이뤄지는 협상 내용을 뜯어보면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셈이다. 결국, 실무기구 차원에서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 소득 상한 1.5~1.6배라는 '개혁 구간'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마치고 여야의 정치적 협상 과제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이 실린다.

문제는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다. 공무원 단체 사이에선 “기여율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은 내릴 수 없다”거나 “기여

율을 올리더라도 소득 수준에 차등을 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들도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이다.

다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도 공무원 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슈지만, 향후 공무원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의 상대적 인 격차를 좁히는 게 공무원 단체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실무기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단 지난달 28일 해체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선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맞춰

항목	현행	개혁안
기여율	7%	9~10%
정액 부담률	7%	9~10%
소득보통율	14%	18~20%
연령	40년	51~57년 (30~40년)
지급수준	연 1.9%	연 1.65~1.75%
소득대체율	57%	49.5~52.5%
연금소득(447만 원 기준)	255만 원	221~235만 원 (8~13%)
소득상한선	연 1.8배	1.5~1.6배
연금보험료	804만 원	671~715만 원

출범시키겠다는 합의를 이뤄낸 상태지만, 공무원 단체들은 좀 더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새정치연합과, 마찬가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안고 가야 하는 새누리당의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 새롭게 전개될 정국의 흐름을 진단하고 나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보성 '녹차마인보성쌀', 영암 '달마지쌀골드', 담양 '대숲맑은쌀', 나주 '드림생미',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강진 '프리미엄호평', 영암 '하늘아래한쌀', 해남 '한눈에반한쌀', 무안 '황토랑쌀'이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26일 “13개 시·군에서 추천된 17개 브랜드쌀을 대상으로 맛과 품질 및 외관 품위, 현장 심사 등 분야별 평

가를 실시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을 뽑았다”고 밝혔다. 이번 브랜드쌀 평가는 시중 판매 매장에서 2차에 걸쳐 시료를 구입해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분석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품질 헌입률, 외관 품위, 식미평가, 중금속 및 잔류농약검사, 서류 및 현장 평가 등 2개월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윤현석기자chadol@

창사 63주년

지리산 순·한韓牛 맑고 수려한 남도의 순수 우리한우

녹색한우 청정 전남의 대표 한우

함평천지한우 국내유일의 설레눔함유 한우고기

영광정보리한우 정보리를 먹고 자란 명품한우

해두루포크 자연의 햇살을 가득담은 무항생제 돼지고기

지리산매실포크 매실의 본고장에서 키운 매실먹인 돼지고기

해두루오리 농협에서 키우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건강 오리

“생명의 땅 전라남도”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생산!

전남농협이 약속합니다.

NH NongHyup 전남농협